

환경사업의 代父

이달우(李達雨) 회장 -上-

박 창 근

〈분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9
1990



▲ 본 월간지 1990년 9월호 '환경관리인 연합회보' 표지에 모셨던, 당시 (사)한국환경오염방지시설협회 회장으로 계셨던 이달우 회장님.

1. 글에 앞서

긍정적 사고(positive thinking)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 낙천주의자에게는 물이 반이나 남은 컵이, 염세주의자에게는 이미 반이나 빈 것으로 비춰진다는 진부한 얘기를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스스로에게 닥친 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상황에 맞설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자신의 운명에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심리학적 용어로 첫 번째 경우를 '타자 결정적(fremdbestimmt)', 두 번째 경우를 '자기 결정적(selbstbestimmt)'이라고 일컫는다. 많은 연구를 통해 '타자 결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염세적인 성향이 강하고, 이에 반해 '자기 결정적'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낙천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사람들은 성격도 더 뛰어나고 병에 대한 면역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같은 결과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병의 회복을 줄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증거라고 믿는다. 급기야 학계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공공에 유포한다. 그 내용이란 늘 보아왔듯이 '웃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많이 웃어라'이다. 이 말은 불평분자들을 반드시 웃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웃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아픈 일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랜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나 낙천적 성격에 속하는 외향성을 지니고 있다. 코네티컷 스톨닝톤 연구소의 제임스 콘리(James Conley)는 수백 명을 선발하여 당사자와 배우자 그리고 가까운 친지에게 20년에서 45년에 걸쳐 실험 대상자의 성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놀랍게도 이 세월 동안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외향성 등의 성격적인 특성들도 거의 변함이 없었다.

볼티모어의 노화국립연구소의 심리학자 폴 코스타(Paul Costa)와 로버트 맥크래(Robert McCrae)는 두 가지 대규모 연구를 통해 19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40세 또는 80세에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잭 블록(Jack Block)은 자신의 실험 대상자들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그 역시 낙천적인 성격이든 비관적인 성격이든 대부분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 걱정을 승화시킨 이달우 회장

장황하게 서론을 늘어놓은 것은 이달우 회장이야말로, '긍정적 사고'의 주인공이며, '운명에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한 분이기 때문이다.

10년 전 일이다. 이달우 회장께서 노용희, 노재식, 이승무 박사와 필자를 제주도로 초청해주신 적이 있다. "신선한 생선회나 떡자"는 가벼운 초청이었지만, 3박 4일의 여정(旅程)동안 우리는 이달우 회장의 극진한 대접과 제주도에 이룩해 놓은 놀라운 '자연

공원'을 볼 수 있었다.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중 산간지방 십여만 평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이다.

일행은 이달우 회장의 안내로 공원을 돌아보며, 감탄했다.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도 이달우 회장의 계획에 따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해 놓았는데, 이달우 회장께서 생각하는 자연의 모습이다.

바쁜 사업 중에 제주도에 이토록 거대한 자연공원을 조성한 이달우 회장의 변(變)이 '운명에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한 예가 된다.

즉, 학생운동이 유행병처럼 번지던 1980년대, 이달우 회장의 따님을 대학에서 학생운동에 앞장섰다고 한다. '사업가는 사업에 열중하고, 학생은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는 이달우 회장의 철학에 따라, 학생운동을 하는 따님을 제주도에 강제(?)로 귀양(?) 보냈다는 것이다. 물론, 육지로 올수 없도록 '증명서'도 차압하고...

그래도 따님을 측은하게 생각한 이달우 회장은 바쁜 시간 중에도 자주 제주도를 찾아 따님을 위로했는데, 그런 과정에 제주도의 풍광(風光)에 매료되어, 따님이 귀양(?)에서 풀려난 후에도 제주도를 찾다가, 끝내 자연공원을 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운명에 스스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달우 회장은 나이에 비해, 젊디젊다.

낙천적인 이달우 회장이 면역력이 강해, 늙지 않는 증거다. 뿐만 아니라, 항상 호방하게 웃는 모습에서 "웃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많이 웃어라" 그러면 젊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틴 셀리히만(Martin Seligman)의 실용주의적 주장에서 긍정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맹목적인 낙천주의가 아닌 유연성 있는, 다시 말해서 눈이 열려 있는 낙천주의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비관주의의 냉철한 현실 인식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계속)